

5·18 전야제 부활... 시국관련 행사 늘려

5·18 35주년 기념행사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

전국서 문화·예술 등 10개분야 50개행사 첫날 국립 5·18민주묘지서 '만장 깃발전' 27일 옛 도청앞 '부활제' 끝으로 마무리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시·도민들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공모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의 행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전야제 부활·광주시민대성회·민주대행진·국민대회 등 세월호 참사 1주기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시국 현안과 관련된 행사를 대폭 늘린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20일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행사위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국제·타지역연대 등 10개 분야 50여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날인 내달 1일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 도로에는 '만장 깃발전'이 열리고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또 같은 날 5·18 자유공원에서 '5·18 자유공원 역사 체험' '5·18 영정제헌학습'이 진행된다.

8일과 9일엔 오월 어머니집과 5·18 교

육관에서 각각 '오월 어머니상 시상식'과 '전국교사연수 : 역사를 말하다' 행사가 개최된다.

13일엔 5·18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미문화원 점거농성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에서 처음 조망되는 행사로, 지난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15일~18일까지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 주관으로 '오월길 순례행사'와 '세계 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된다.

17일엔 전국노동자대회·국민대회·민주대행진·광주시민대성회 등 시국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추도 분위기 속에 취소됐던 전야제가 부활된다.

18일엔 광주인권상 시상식과 광주시립교향악단 5·18 특별연주회 '운명'이 5·18 기념문화회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각각 열린다.

20일~21일엔 민주기사의 날 행사와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진행되며, 22일엔 35

5·18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 주요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소
5월 1~31일	5·18자유공원 역사체험	5·18자유공원
8일	오월어머니상 시상식	오월어머니집
9~10일	전국교사연수(심화연수) : 역사를 말하다	5·18교육관
15~18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김대중컨벤션센터
13일 오후 2시	미문화원 점거농성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연구소 대회의실
16일 오전 10시~오후4시30분	기억과 식별의 5·18대화마당	5·18교육관
17일 오전 9시 30분	추모제	국립5·18민주묘지
17일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	미정
17일 오후 4시	국민대회	미정
17일 오후 6~7시	민주대행진	광주역→광주은행오거리→금남로
17일 오후 4시30~6시	광주시민대성회	민주평화광장
17일 오후 7시 30분	전야제	금남로
18일 오전 10시	기념식	국립5·18민주묘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립교향악단 5·18 특별연주회 '운명'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일 오후 2시	민주기사의 날	챔피언스필드(구무등경기장)→금남로
27일 오후 7시	부활제	옛전남도청

* 마을단위 행사기 제외된 일정은 행사위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주년 기념 학술대회인 '5·18 현장의 사람들과 인권' 행사가 개설된다. 35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7일 옛 전남도청 앞길에서 열리는 '부활제'를 끝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린다.

한편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행사위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주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행사의

슬로건으로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를 최종 선정했다.

슬로건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민주주의 위기',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 등이 시대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4 | 해질 19:09 | 달뜨기 07:44 | 달지기 21:52

주말까지 맑은 날씨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5/22	보성	맑음	6/21
목포	맑음	7/20	순천	맑음	9/22
여수	맑음	10/17	영광	맑음	5/21
나주	맑음	5/23	진도	맑음	5/21
완도	맑음	8/21	전주	맑음	8/22
구례	맑음	6/23	군산	맑음	7/19
강진	맑음	5/22	남원	맑음	6/23
해남	맑음	5/22	홍산도	맑음	8/17
장성	맑음	4/22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	0.5~1.5	남서	서	0.5
남부	면서	북	1.0~2.0	남서	서	0.5~1.5
남해	면서	북	0.5~1.5	북	북동	0.5~1.0
서부	면서	북	1.5~2.5	북	북동	1.0~2.0
면서	북	북동	1.0~2.0	북	북동	1.0~2.0

◇생활지수

수면	80
운동	80
빨래	8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56	09:02
	16:03	21:11
여수	밀물	썰물
	10:46	04:33
	23:15	16:44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	☀	☀	☀	☀	☀	☀
7/20	9/24	9/24	10/25	12/22	12/23	12/24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퀵런지' 광주·전남 예선대회

내달 9일 공군 1전투비행단

'제 37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퀵런지 2015' 광주·전남 예선대회가 다음달 9일 공군 제 1 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대회는 지난 197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항공기 마니아가 출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다. 고무동력기·글라이더·볼로켓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입상자들은 9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airforce.mil.kr/SCH)에 등록하면 된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은 이날 부대를 개내 항공기 마니아를 위한 공군 특수비행대 규모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를 위해 공군 의장대 시범공연 등도 진행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31사단, 지역 민·관·군·경 통합방위 '화랑훈련' 실시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육군 제 31보병사단은 후방 지역 민·관·군·경 통합방위 훈련인 화랑훈련이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광주·전남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년 마다 시행되는 화랑훈련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연기됐었다. 훈련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육군 31사단,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지역 국가 중요시설,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올해 훈련은 7월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관련 기관간 성공 개화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계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 적 특수부대 요원을 가정한 대항군을 운용하고 검문소 운영, 공포탄 사용, 불시 예비군 동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호랑이·사자 "방 바꾸기 힘드네"

광주우치동물원 아프리카관 개관 리모델링

우리 교환 작업과정 사육사들과 신경전 치열

광주우치동물원 사육사와 사자·호랑이가 우리(방사장) 이사 문제를 놓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사육사들은 새로 지은 아프리카관 우리 환경을 감안, 사자와 호랑이의 우리를 바꾸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인 이들은 기존에 살던 우리에서 좀처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으름장만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동물의 생태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해 만든 아프리카관 개관을 앞두고 사자와 호랑이의 우리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2곳이던 우리가 리모델링 이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조정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방사장 면적은 각각 530㎡(160.3평)·640㎡(193.6평)·530㎡(160.3평)로, 이들 방사장은 여닫이 문 개폐 여부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기도 세 곳으로 나뉘기도 한다.

사육사들은 맹수의 특성과 개체 수(호랑이 3마리·사자 5마리)를 감안, 우리를 배정했다.

현재 사자의 우리가 앞으로 호랑이가 사용할 방사장인데, 640㎡ 크기의 방사장엔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연못 등 수경시설이 갖춰져 있다.

반대로 호랑이 우리엔 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정형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



다음달 1일 개관될 아프리카관 호랑이 우리.

(사진=우치동물원 제공)

육사들은 지난 10일부터 먹이인 생닭을 이용해 호랑이와 사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좀처럼 먹혀들지 않으면서 애를 먹고 있다.

또 자신들이 먹고 자고 쉬었던 공간을 헐사리 떠나지 않으려는 맹수의 특성을 고

려, 영역 표시한 분비물 등을 곤장 치우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호랑이·사자가 스스로 우리를 옮겨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보궐선거 투표

투표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의 시간 투표 한잔의 여유

※ 만 19세 이상(1996년 4월 30일 이전 출생)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실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가져가세요.

4월 29일(수)

서구를국회의원보궐선거

보궐선거 실시지역 상무2동, 화정3·4동, 서창동, 금호1·2동, 풍암동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24일(금)~25일(토) 사전투표 하세요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층, 화정초등학교 1층 체육관, 서창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강당, 빛고을국악전수관 1층 제1전수실, 풍암동주민센터 주차장

|방법|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가지면 투표가능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